

일본 농지법 개정후 농업법인 진출활발

■ 2009년 일본 농지법 개정 이후 2014년말 현재 1,712법인으로

증가하여 기업의 농업비즈니스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

- 개정전 특구제도에 의한 농업법인 진출 허용시의 5배 속도로 증가
 - 개정전에 비해 1,276업체가 증가하여 393%의 증가율을 보임
- 진출업종별 특징
 - 진출기업들의 업태별 참여는 식품관련산업체가 24%, 농축산업 18%, 기타 서비스업 22%, 건설업 11%로 나타남
 - 유통업체, 외식업체가 자사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참여가 많으며, 지방소재 건설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토목건설공사 수주와 유희시설활용 위한 안정적인 경영확보 차원의 진출이 두드러짐

■ 기업의 농업법인 참가로 인한 유희지 활용과 농촌의 활력소 제공

-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휴경지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대책 차원에서도 기업의 농업법인 참가는 의미가 큼
-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토지리스 이용을 손쉽게 하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춘 것이 주효함
- 리스계약은 소유와 달리 부적절한 이용시에는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요구가 가능하여 토지소유자가 임대를 손쉽게 하도록

안심감 부여

- 지자체, 공사등의 공적인 기관이 토지임대차를 매칭함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안심감 부여

■ 시사점

- 기업들의 적극적인 농업참여로 인해 농업인들이 주식회사에 종업원으로 단순 고용화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위한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펀드유치를 통한 농업인들의 6차 산업화를 적극 유도
- 향후 기업의 농업참여가 가속화 될 경우 농업인들의 단순 고용화 문제가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영방식 등 농가연수가 계속적으로 필요시 됨

(첨부자료 출처 : 일본농림수산성 경영국)